

The Media Korea

교민과 함께 만드는 신문

Email : themediak@gmail.com Tel : 021-5579-6569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2018년 제9회 땅그랑반튼 한인회 한인의 밤 및 한인회장 이취임식

3대 오세명 회장, 4대 채만용 회장

■ 2018년 11월 16일(금), ■ 임페리얼CC

‘환율비상’ 인도네시아, 12조원 규모 채권 발행키로



통화가치 급락으로 몸살을 앓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영기업들이 최소 110억달러(약 12조5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외화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기업 빠르따미나와 광산업체 이날룸(Inalum)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주부터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서 채권 발행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PLN)와 재무부도 연말께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투자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빠르따미나는 20억달러, 이

날룸은 4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PLN과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채권 발행 규모는 각각 20억달러와 30억달러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가치가 추락하는 가운데 진행돼 눈길을 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지표는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5.27%를 기록하는 등 대체로 양호하지만, 올해 초 달러당 1만3천300루피아 내외였던 자카르타 은행 간 현물 달러 환율(JISDOR)은 이달 23일 달러당 1만5천208루피아까지 상승했다.

달러화 대비 가치가 연초보

다 10% 이상 낮아져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5월부터 기준금리를 5차례에 걸쳐 1.50%포인트 인상하고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나섰지만, 루피아와 약세 흐름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전날 열린 금리 결정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현행 연 5.75%로 동결했다.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책 수단을 아껴둔 것으로 풀이된다. BI는 인도네시아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연 5.1%보다 조금 못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자카르타 전자 교통 위반 단속 시스템(E-TLE), 내달 본격 도입

자카르타 주요 도로에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 시스템이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특별주 경찰 당국과 교통부는 15일 주요 도로에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전자 교통 위반 단속 시스템(E-TLE)을 내달 1일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는 이달 1일부터 시험 도입을 통해 통행 차량에 대한 주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5일자 안파라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전자 교통 위반 단속 시스템(E-TLE)은 자카르타 중심부 땀린 거리의 사리나 백화점 전부터 모나스(독립기념탑) 앞 사거리까지의 구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교통 위반 차량 번호를 촬



영, 데이터를 교통관리센터(TMC·Traffic Management Centre)로 자동 전송하는 방법이다.

경찰은 위반 차량 소유자의 등록 주소로 범칙금 납부 통지를 송부한다.

자카르타 경찰 교통부 유습소장은 “10월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포스터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해 주민들에게 주지를 실시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 교통 위반 단속 시스템(E-TLE)의 시험 도입을 실시한 결과, 교통 위반이 40%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랩, 렌트카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작

싱가포르 배차 앱 그랩(Grab)은 10일 인도네시아에서 렌트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용 서비스 시간은 4~12시간으로 요금은 시간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자카르타 수도권

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연료비는 이용 요금에 포함되지만 주차비, 고속도로 요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용 시간을 1분 초과할 때마다 추가 요금 1,000루피아가 추가된다.

그랩은 또 평가 점수가 높은 운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배



차 서비스 ‘그랩카 플러스(GrabCar Plus)’도 시작했다. 일반 배차 서비스보다 요금이 추가된다.

JOIN DOOR

Flooring, Skirting

DONGSEO

Furniture

DONGSEO

Kawasan Industri Manis II, Jl. Palm Manis IV No.61
Gandasari, Jatiuwung, Tangerang Banten - Indonesia

Marketing contact :
☎ +62 021 591 5637
✉ dongseowood@yahoo.co.id

Our Product :

- Doors & Frame
- Furniture Oustom
- Interior Molding
- Flooring
- Skirting
- Paint finish
- + Wood Veneer
- + Duco
- Laminate Finish
- + HPL
- + PVC
- Alumunium door & Frame

인니 싱크탱크, 남북 정상에 ‘평화를 위한 용기상’ 공동수여

아세안 연구소 주최 행사선 남북한 대사 ‘나란히 축하’ 눈길



인도네시아의 외교 분야 싱크탱크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평화를 위한 용기’ 상을 공동 수여했다.

자카르타 소재 싱크탱크 ‘인도네시아 외교정책 커뮤니티’ (FPCI)는 20일 국제평화에 기여한 외국 인사에 수여할 특별상으로 평화를 위한 용기 상을 제정하고 남북한 정상을 첫 수상자로 선정했다.

FPCI는 “두 정상의 친분관계 구축과 새롭고 담대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려는 노력은 남북한 상황의 급격한 개선을 가져왔다. 2018년 한반도 상황은 대립과 긴장, 위협으로 점철됐던 2017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에서 비롯됐다면서 “비핵화와 통일을 위해 앞으로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

계의 개선은 2018년 아시아와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FPCI는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두 정상에게 평화를 위한 용기 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들이 한국 국민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지속시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자카르타 시내에서 열린 FPCI 연례 콘퍼런스에서 진행됐으며,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와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가 대리수상했다.

약 3천 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는 렛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 루훗 빈사르 판자이판 해양조정장관도 동석했다.

한편, 전날 자카르타 시내에서는 평화와 관용을 주제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평화·화해 연구소가

주최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이 후원해 열린 청년 콘퍼런스에서 남북한 현지 대사가 나란히 축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영재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는 안광일 대사와 함께 연단에 올라 “올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평화와 화해, 관용의 환경을 조성하는 긴 노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 대사는 “조미(북미) 관계에서도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조미 사이에는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평화 기류를 연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취한 선의의 조치에 국제사회가 화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세안과 세계 각국이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서 남북한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남북한 대사가 같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번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단에 오른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인도네시아 외무부와 아세안이 이런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남북한과의 삼각협력에 갖는 큰 관심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니 노동부, 2019년 주최저임금 8.03% 인상 결정



인도네시아 2019년 주최저임금(UMP, Upah Minimum Provinsi) 인상폭이 전년 대비 8.0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니프 노동부장관이 내년 주최저임금의 인상률을 8.03%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인상률 8.71%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로, 이 인상폭을 적용하면 2019년 수도 자카르타의 최저 임금은 394만 972루피아가 된다.

하니프 노동부 장관은 15일 전국 주지사들에게 공포한 노동부 장관 안내장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5.15%, 인플레이션을 2.88%로 계산해 내년의 주최저임금 인상폭을 8.03%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임금에 관한 시행령 ‘2015년 제78호’에 따라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을 임금 인상률로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총연합(KSPI)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올해 수준에서 20~25%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협회(ASPEK)의 미라 수미랏 회장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20%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KSPI 측은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루피아 환율 하락, 고유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생필품의 물가가 크게 상승하여 노동자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현재 근로자가 적절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적정생활수준(KHL)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재차 표명했다.

인니 비즈니스의 脈

20년 세월! 한인동포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과 인허가, 비자대행 업무로 한결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신뢰와 성실로 다져온 CITRA CONSULTING은 한인동포의 어려움과 보다 안정된 사업을 위해 함께 해 나갈것입니다

Try your best rather than be the best

CITRA Consulting

주요업무

시장조사 / 회사설립 / 수출입 관련 서류 및 보세구역 / 체류관련 / 기타 업무

Office: Gedung Multika Lt.2 Room. 209/209A
Jl. Mampang Prapatan Kav.71-73 Jakarta Selatan

TEL : 021-797-5204 / 021-797-5216 CP : 0815-914-4100 / 0812-1301-8314
email : info@citraworld.net / choi@citraworld.net / cgn02@citraworld.net

한국형 전투기 사업 참여 인도네시아, 분담금 2천300억원 미납

방사청 “작년 하반기부터 안 낸
인도네시아, 납부 방안 협상 요청”



▲ 방위사업청이 지난 26~28일 사흘간 'KF-X' 체계개발을 위한 기본설계검토(PDR) 회의를 열어 전투기 외형 등 군이 요구하는 기본성능이 기본설계에 모두 반영됐음을 확인했다고 29일 전했다. 이 설계도가 완성되면 곧바로 'KF-X' 시제 1호기 제작에 돌입한다. 사진은 한국형 전투기 'KF-X' 상부 측면 기본설계 형상 모습. 2018.6.29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작년 하반기부터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강한석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가 KF-X 개발 분담금을 언제부터 내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미납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강 대변인은 ‘인도네시아의 미납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 “올해 상반기까지 2천300억원”이라고

전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는 총 8조5천억원의 개발 비용 중 20%를 부담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인도네시아로부터) 납부 방안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는 요청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지난 19일 기자들을 만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KF-X 사업 참여조건을 재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란토 장관은 “국가 경제 여건을 고려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재협상을 결정했다. 따라서 우리는 재정 관련 사항에서 인도네시아의 부담이 덜해지도록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지연이 2026년까지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코위 · 마루프 후보, 대선 여론 조사서 지지율 60%

인도네시아 대선 관련 여론 조사에서
조코위 · 마루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60.4%로 나타났다.

내년 4월 17일 치러질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최신의 민간 여론 조사에 따르면, 현직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구 울레마협의회(MUI)의 의장인 종교 지도자 마루프 아민 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60.4%로 나타났다.

반면 제1야당인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의 뿌라보워 수비안포 총재와 부통령 후보인 자카르타특별주 산디아가 우노 전 부지사의 지지율은 29.8%에 그쳤다.

17일 자카르타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여론 조사는 인도네시아 리서치 기업인 사이폴 무자니 리서치 앤드 컨설팅(SMRC)이 지난 9월 7~14일에 걸쳐 실시했다.

빠라마디나 대학(Para-



madina University)의 전문가 핸드리씨는 뿌라보워 수비안포 총재에 대해 “진정으로 대통령이 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3일부터 공식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 산디아가 부통령 후보는 롬복

지진 피해자들을 찾아 위로하고 기업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눈에 띄는 반면, 대선주자인 뿌라보워 후보는 지난달 대부분을 자카르타특별주에서 보내는 등 대선 운동의 지루함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중한 새싹

갓 피어난
새싹처럼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세찬 풍파 속에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푸른 새싹이
큰 나무로
성장 할 수 있는
멘토를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JC PT. JOO CONSULTANT

Office : Karawaci Office Park (Ruko Pinangia) Block D37 Lippo Karawaci Tangerang
Tel : (021) 558 1618
Email : joo_consultant@hotmail.com/jooconsultant@hanmail.net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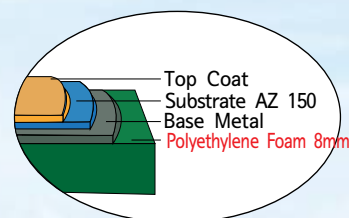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35mm
2. 25mm Trimdek
1040mm
25mm
3. 35mm Spandek
920mm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55mm
6. Genteng Metal (기 와)
82mm
35mm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현대차, 이젠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 세울까?”

최근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현대차 생산공장 설립 얘기가 나온 터라 늑대소년의 외침으로 들릴 수도 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자동차시장은 일본 업체가 98% 장악하고 있는 난공불락의 아성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아

네시아를 국민 방문해 기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현대차 진출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월 24일 서울에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현대차 등 한국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를 열어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

창출과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 전 중국 자동차업체가 현지에서 조립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대차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일본 업체의 독점시장에 경쟁체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는 미국과 중국 등 핵심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활로 찾기를 모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2017년 기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 자동차시장은 현재 약 319만대이며 인도네시아시장은 100만 대 규모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 145만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현재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0.2%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자카르타 인근 버카시 지역에 소재한 생산 및 판매회사인 현대모빌인도네시아(PT)의 자체 조립공장에서 반조립제품을 연간 최대 4천 대 조립해 판매하고 있다. 또 현대차는 지난해 연말에 인도네시아 대기업 아르타그라하그룹과 상용차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 현지에서 연간 2천 대의 상용차 생산을 목표로 세웠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자동차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산 완성차에 30% 이상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세안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아세안 자유무역협약(AFTA)에 따라 무관세로 역내 수출이 가능한 만큼 인도네시아에 생산기지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신성철 대표]



▲ 인도네시아 국제자동차 모터쇼 전경.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현지 고위급 관리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방문한 조코 위도도(일명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현대차 고위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연산 20만대 규모의 승용차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자동차생산자협회(Gaikindo) 꾸꾸 꾸마라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 현대차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이 지난 9월 9일 조코 위도도(일명 조꼬위) 대통령 국민 방한 때, 5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현지에 완성차 공장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인도

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등 세계 혜택 등 현지 시장에 현대차가 연착륙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새 공장 건설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익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지난 8월 26일 인도네시아 출장길에 올랐다. 동남아시아 현지 생산기지 검토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차의 새 동남아시아 생산 전진기지 후보로 인도네시아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출장 뉴스가 나오자 주목을 받고 있다. 정 부회장의 인도네시아 방문이 현지 투자 건과 관련한 일정이란 예측도 돌고 있는 반면, 현대차 관계자는 “정 부회장이 아시아양궁협회장 자격으로 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참관차 출국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천연자원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꼬위 정부는 고용

인도네시아 내년 최저 임금 인상률, ‘산업계는 난색’



인도네시아 노동부가 내년 주최저임금(UMP, Upah Minimum Provinsi) 인상폭을 8.03%로 설정한 가운데, 산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자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 자카르타특별주 지부의 살만 부지부장은 정부가 설정한 UMP의 인상률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루피아 약세로 기업

의 사업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정부는 고려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도네시아 가전제품업체연합(Gabel)의 한 관계자는 “UMP 인상률의 설정에 있어서 정부는 노동 집약형 산업의 성장률과 국민 건강보험료 및 연금 부담 증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산업의 올해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감소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식음료업체연합(Gapmmi)의 아디 회장은 “루피아 약세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8.03%의 인상률은 부담이 크지만,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임금 이외의 비용 절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음료 산업은 올해 전년 대비 8~9%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미중 무역 전쟁이나 루피아 약세 등 세계 시장 장래가 불투명해 전년의 성장률 9.2%를 밑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LITE3
SINAR ABADI

가성비 최적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공장 유니폼
단체복
골프복
기타

JWjindohwang@gmail.com

0812 1324 1251
021 5518 037

메밀냉면
평양식
최고의 한식 셰프가 만듭니다

명품만두
전통 한식 바베큐

Pork BBQ 7 Items!
Barbeque pork 20% Off

Karawaci
Jl. Boulevard Palem Raya No.2809 Taman Sari Uppa Karawaci
(021) 547-3172-3. Hp: 08222-09-55547

Cikarang
Jl. Majapahit, Desa Cibatu Kav.62, Uppa Cikarang
(021) 2909-3000, (021)2909-3555 Hp: 0812-9037-7717

Pantai Indah Kapuk
Ruko the Gallery Block 8 unit FC Jl.Pantai Indah Utara 2, Pantai Indah Kapuk
(021) 3005-1650, (021)3005-1660 Hp: 0811-823-9000

“Impossible을 I’ m Possible로” …월드옥타 무역스쿨 개교

‘한민족 글로벌 경제리더 사관학교’로 불리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의 ‘제16기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모국방문 교육’이 2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시작됐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공동 개최하는 이 무역스쿨에는 해외 100명, 국내 청년 20명 등 모두 120명이 참가했다.

올해는 26개국 57개 지회와 아주대, 경남대, 전주대, 한남대, 차의과대 등에서 글로벌 창업과 해외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이 무역스쿨에 입교했다.

입교식은 박기출 회장의 개회사, 조정부 연합뉴스 사장의 격려사, 오영태 아주대 부총장의 축사, 교육생 대표 선서,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 회장은 “무역스쿨은 ‘불가능’ (Impossible)을 ‘나는 가능하다’ (I’ m possi-



차세대 모국방문 스쿨 입교식 기념촬영 (사진= 왕길환)

‘한민족 글로벌 경제사관학교’에 국내외 청년 120명 참가

ble)로 바꾸는 자리이고, 여러분의 선배가 구축해 놓은 전 세계 3만여 명의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장(場)”이라며 “언젠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지일우 한민족센

터 본부장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이번 교육 기간 각자의 우수한 자질에 더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를 익히고 글로벌 마인드도 함양해 차세대 리더로서의 기반을 다지기를 기대한다”며 “연합뉴스는 월드옥타의 동반자로서 여러분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적인 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

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입교식에는 월드옥타의 황희재 대외협력 부회장, 이태석 차세대 위원장, 이종원·강동진·홍해·은상진·이상훈·김순원 등 차세대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입교식에 앞서 ‘월드옥타와 차세대’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참가자들은 23일부터 29일 수료식까지 로빈 리 몬스터 부사장을 비롯해 최광철 SK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송창근 인도네시아 KMK글로벌스포츠그룹 회장, 최재원 다음소프트 이사,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 오준 세이브터칠드런 이사장 등의 특강을 듣는다.

또 글로벌 비즈니스의 실무교육과 함께 팀을 나눠 창업아이템을 짜고 이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상륙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도 갖는다.

월드옥타는 매년 6~8월 대륙과 지역에서 통합 교육으로 무역스쿨을 치르거나 지회별로 나눠 진행한다. 교육이 끝나면 성적이 우수한 수료생을 10월 모국으로 초청해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모국방문’을 연다. 이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15년 동안 2만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롯데케미칼, 4조원 인도네시아 사업 재개

롯데케미칼의 인니 석유화학 단지 건설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서 롯데케미칼은 롯데지주로 편입되고,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신사업 투자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지난 10일 롯데케미칼 주식 796만여주를 2조 2,274억원에 매입하며 총 지분 23.24%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또 롯데케미칼은 보유중이던 롯데자산개발과 호텔롯데 지분을 각각 674억6,500만원, 589억원에 롯데지주에 팔았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지분 매각 작업 등을 통해 확보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4조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사업 재개에 나설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동남아 자회사인 LC타이탄을 통해 인도네시아 반판주 필레곤에 NCC(납사분해시설) 등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투자액은 약 4조원으로 롯데그룹의 단일 해외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는 지난

했으나,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중단된 것이다.

신 회장 복귀로 인도네시아 사업 재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방한해서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을 만나 롯데에 투자 요청을 한 바 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롯데케미칼은 2023년 인도네시아에서 에틸렌 연간 100만톤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국내 여수·대산공장, 미국 루이지애나,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공장에 인도네시아까지 가세하면 롯데케미칼의 글로벌 에틸렌 생산능력은 연간 500만톤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톱10에 해당하는 생산능력이다.

업계 관계자는 “에틸렌은 ‘산업의 쌀’로 불릴 만큼 한 국가의 경제성장도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동남아 시장의 경제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에틸렌 수요량이 늘어나는데 인도네시아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롯데의 대단히 전략적인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인니 석유화학 단지 건설이 중단됐다는 보도를 부인한 바 있다.

인니 상륙한 ‘K-패션’, 新한류 선도 유망주로 거듭나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한콘진)이 지난 9월 발간한 <인도네시아 콘텐츠산업 동향>에 따르면, 인니 패션 시장 총매출 규모는 2018년 30.5억 달러에서 2022년 61.7억 달러로, 연평균 19%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인니 국민 소득의 증대와 높아지는 패션 수요에 따른 관련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스나얀시티 패션 아트리움(Senayan City Fashion Atrium)에서 열린 ‘자카르타 패션위크 2019’는 인니 최대 여성 패션미디어 사(社) ‘페미나 그룹(Femina Group)’에서 주최하는 동남아 최대 규모 국제 패션쇼로, 총 6개국 220여 개 디자이너 브랜드가 참가했다.

이번 패션위크에 마련된 한국 세션에는 ▲송유진 디자이너의 ‘에스와이지(SYZ)’ ▲서광준 디자이너의 ‘로얄레이어(Royal Layer)’ 총 두 개의 국내 브랜드가 나서 K-패션의 저력을 뽐냈다. 에스와이지는 송유진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관능적이고 세련된 ‘클래식 쿠퍼트’ 방식의 의상을 선보이며 좌중을 매료시켰다. 이어 로얄레이어는 기존 디자인 패턴의 해체 및 반



전을 통해 새로운 의상 디자인을 소개, 업계 관계자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한국 세션에 참석한 현지 유명 패션잡지 ‘고걸(Go-Girl)’의 사나 가리니 기자는 “K-Pop과 드라마에 이어 K-패션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이미 한류 콘텐츠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더욱 다양한 K-패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콘진은 한-인니 양국 간 패션산업 교류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국내 디자이너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패션위크’와 국내 ‘패션코드(Fashion KODE)’ 행사에 양국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특별 세션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한상대회 인천 송도컨벤시아 … 모국과 상생발전 모색

한상 · 국내기업인 3천500명 사흘간 ‘비즈니스 · 네트워크 한마당’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 간 상생을 모색하고 글로벌 한민족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제17차 세계한상대회’가 23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막을 올렸다.

‘새로운 변화와 도약, 한상 네트워크’라는 슬로건으로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60개국 한상과 국내 기업인 등 3천500여 명이 참가했다.

국군의장대의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연 개회식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개회사, 박기출 대회장의 대회사, 문재인 대통령 축하, 박남춘 인천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시장 주최 환영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한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각지에서 한민족 경제영토를 넓혀온 여러분 덕분에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가 탄생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모국과 동반 성장하는 한상의 위상을 확고히 세우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축하사에서 “짧은 기간 기적 같은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졌고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실현할 때 우리 민족과



▲문 대통령 ‘하나된 한상, 함께 여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개회식에서 축하하고 있다.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며 “한민족이라는 강한 유대감을 가진 한상들이 우리 경제에도 세계 경제에도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인천시는 앞으로도 재외 경제인들이 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를 키워가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 선배님들의 도전정신을 본받아 명실상부한 동북경제 중심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회식에 앞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박 대회장은 “2002년부터 매년 열어온 한상대회는 이제 740만 한민

족 네트워크의 대명사로 성장했다”며 “국내 청년들의 더 많은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3년간 한상 기업을 통한 국내 청년 1천 명 채용 캠페인을 이번 대회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한상대회 운영위원, 리딩CEO, 인천 지역 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열린 ‘한상포럼’에서는 윤종록 가천대 석좌교수가 ‘소프트파워가 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송창근 회장은 아시아대륙을 대표하여 박규내 직원과 함께 단상에 올라가 열쇠 퍼포먼스

를 선보였다.

컨벤시아 전시장에서는 기업 전시회 오프닝 행사도 열렸다. 중소기업 특별관, 아이디어 상품관, 글로벌 식품관, 수출 우수기업관, IT 기업관, 뷰티·이미용관, 스타트업관 등 259개 전시 부스가 29일까지 운영된다.

대회 이틀째인 24일 오전에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과 파라과이 대표 한상인 구일회 라스 따꾸아라스 대표가 연사로 나서는 ‘한상 리더십 컨퍼런스’를 비롯해 ‘한상 비즈니스 세미나’, ‘한상 비즈니스 네트워킹’, ‘일대일 비즈니스미팅’ 등 본격적인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한상 비즈니스 세미나’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세계 한상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신북방정책’ 세션과 신남방 지역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잠재력에 대해 전망하는 ‘신남방정책’, ‘아프리카·중동 투자’ 세션으로 세분화해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진다.

25일에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과 멘토링을 진행하는 ‘한상&청년, 고 투게더(Go Together)’와 경제단체별 총회가 열린다.

코린도사회공헌재단, 술라웨시 지진해일 피해복구에 70억 루피아 지원



코린도 그룹의 사회공헌재단(Yayasan Korindo)이 9월 28일 강진과 쓰나미의 피해를 입은 술라웨시를 위해 70억 루피아 상당의 지원을 약속했다.

코린도 사회공헌재단은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재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코린도 그룹의 주력사업 제품인 합판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0월 11일 오전 11시 PMI(인도네시아 적십자사)본부에서 열린 지원 협약식에서는 승범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 겸 코린도 그룹 수석 부회장과 이순형 사회공헌재단 사무총장, 그리고 인도네시아 적십자사 부총재인 기난자르 까르타사스미타(Ginandjar Kartasasmita)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코린도사회공헌재단이 약속한 지원은 총 4종류의 합판으로 112,200장(약 1,100㎡)에 달한다. 이는 일반 합판을 비롯해 콘크리트 양생에 쓰이는

코팅 합판 등이다.

이날 사회공헌재단의 이사장인 승범수 코린도 그룹 수석 부회장은 “이번 술라웨시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코린도 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합판으로 건설하게 성장한 만큼, 우리 코린도 사회공헌재단이 전달하는 합판이 피해 지역의 재건과 복구에 요긴하게 쓰여 하루 속히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난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코린도 사회공헌재단은 지난 8월에 일어났던 톰복 지진에서도 긴급 구호 물품들을 신속히 전달해 피해자들을 도왔다. 코린도 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성장한 기업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회공헌재단인 Yayasan KORINDO를 설립해 인도네시아와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오고 있다.

가루다 인도네시아, 인천공항 2터미널로 항공사 추가 이전 … E티켓 확인필수



올해 1월 18일 개장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이달 2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추가로 배치돼 공항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현재 1터미널을 이용하는 아에로멕시코(AM)·알리탈리아(AZ)·중화항공(CI)·가루다 인도네시아(GA)·샤먼항공(MF)·체코항공(OK)·아에로플로트(SU)를 28일 2터미널로 이전한다고 21일 밝혔

다.

이에 따라 2터미널의 인천공항 여객분담률은 현재의 27.5%보다 3.1%포인트 늘어난 30.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항공사가 공동으로 운항하는 ‘코드쉐어’ 항공편의 경우 항공권을 판매한 항공사가 아닌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에 맞춰 터미널을 찾아가야 하는 만큼 이용객은 E티켓에 있는 터미널 정보를 확

인해야 한다.

인천공항은 항공사·여행사와 협조하고 공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동원해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항 철도와 도로 표지판, 공항 셔틀버스 정류장에서도 항공사별 터미널 이용 정보가 표시될 예정이다. 이용객들은 공항 모바일 앱(인천공항 가이드)에서도 터미널 이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또 1·2터미널 게시판과 안내방송을 이용해 항공사별 터미널 안내를 강화하고, 출국장과 교통센터 등에 안내 인력 250명을 배치해 이용객이 터미널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을 잘못 찾은 이용객이 발생할 경우 공항 측은 직통 순환 버스와 긴급 순찰차를 통해 다른 터미널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글에 소개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대목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 보증금에서 까먹고, 그것도 다 하면 교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하려고 하다가 저에게 했어요.

전에 저희 교회 여자 성도 분이었는데 ‘목사님 교회 문 아직 안 닫으셨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수퍼마켓이에요? 열었다 닫았다 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게 많아요. 간판 내리고 그런 게. 그게 임대료 감당도 안 되고 자기 생활이 안돼서 그래요. 그리고 목사라는 이름을 떼버리죠. 직업인으로 돌아서 살아가는 신학교 동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바에는 일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목회를 하면서 얼마든지 목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교인이 안 모여서 폐교회 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목회를 하다가 이 길이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 것을 깨닫고 그만 둘 수도 있다. 그런데 소명이 다 하여 목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밀린 월세로 보증금 다 까먹고 나서 별 수 없이 목회를 접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다.

“나중에 교회에서 사례를 받겠다고 생각해도 초기에는 자비량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요. 대부분 중간에 보면 신학교 동기도 보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 조금하고 개척자금하고 주변에서 해주시는 것하고 건물 한 층에 임대받아서 시작하다가 성도가 안 늘어나면 나중에 접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개척을 하는 목회자들을 이러한 패턴으로 시작할 것이다.

자신 이 가진 모든 재산과 미래의 모든 것들, 그리고 신용대출은 안 되니 가족, 친지들, 그리고 지인들의 돈을 빌려서 시작을 한다.

는데 현실은 보증금이 다 없어진 것이다.

결국 빚에 빚을 지고 카드빚까지 늘어나고, 교회당에서

을 해지해야 한다고 믿는다. 더 이상 목회자를 범법자로 몰아가지 말고 떳떳하게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

실시하고 있는 공부방이나 사회복지활동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개인들이 알아

사회적 목회를 말한다 문닫는 교회들, 내몰리는 목회자들



그러나 교인은 안 모이고, 월세는 꼬박꼬박 나가야 하고, 교회당에서 열심히 기도는 하

쫓겨나고, 목회자로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빚더미만 껴안고 빚 갚는 일만 하는 것이다.

목회자 겸직 금지, 적절한가 현재 대부분의 교단은 목회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생계를 책임져 주지도 않으면서 금지조차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미 설문조사에서 보았지만 목회자들의 다수인 73.9%가 겸직을 지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목회자들은 교회의 사례만으로 살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설문에 응한 목회자들을 기준으로 볼 때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163만에 못 미치는 사례를 받는 목회자가 66.7%에 이른다.

또 대법원이 제시하는 최저생계비인 244만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은 무려 85.6%나 된다. 심지어 목회자의 15%는 교회로부터 어떤 사례도 받지 못하며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자의 겸직금지 조항이 과연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각 교단이 유지하고 있는 겸직 조항

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 눈을 피해서 야간과 새벽에 일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실제적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러한 일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또 이를 통해서 목사로서 일 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그 일자리가 선교적 자리가 될 수 있다.

인터뷰에 응한 한 목사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은 목사라고 밝힌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들을 상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가운데 그는 깨달았다고 한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이 하는 목회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또 현실적으로 이제는 목회자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의미 있는 일자리들이 있을 수 있다. 학교의 교양 강사로 나서는 일이나 시민단체에서 일 하는 것 등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교회에서 많이

서 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교단이나 지방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하고, 일자리 만들어주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굳이 그 일이 전업일 필요는 없다.

전업일 경우 더 어려울 수 있다. 파트사역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면서도 목회가 큰 부담이 없는 일들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회자들의 최저생계비와 노후대책은 누가 더 바란다면 교단들이 목회자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교단의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그들이 개척하는 것을 장려하지만 정작 그들이 생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교단이 그들을 목회자로서 자신들의 공동체에 편입했다면 그들의 삶도 책임져 주어야 한다.

목회자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교단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저생계비 외에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노후대책이다.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목회자들이 은퇴하게 되면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는 한국사회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생계도 힘든 이들이 노후대책이란 것은 생각도 못해 보았을 것이고, 이들이 더 나이가 들어가면 경제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인데 이들의 남은 삶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진지하게 고심해 보아야 한다.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최고의 건강 선물

빨간양파즙
리빙

Rp. 600,000 60팩 / Box



한국건강원



빨간양파즙, 양배추즙, 강황즙, 우영한약즙, 우영즙, 늙은호박즙, 여주즙, 가지즙, 미나리즙, 시르삭즙, 십전대보탕, 개소주 액기스, 장어 액기스, 코브라 액기스, 킹코브라 액기스, 배도라지즙, 배즙, 키위즙, 포도즙, 사과즙, 비아그라, 씨알리스, 웅담, 저담, 사담

이슬브
중류액

개소주 중류액, 흑염소 중류액, 코브라 중류액, 자라 중류액, 잉어 중류액, 장어 중류액, 붕어 중류액, 마늘 중류액, 오가피 중류액

HP. 0811-92-3200
Tel. 021-2931 3027

인도네시아 전 지역
배달 드립니다

印尼 최초의 할랄 공단 착공...모데른 할랄 밸리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업체 모던랜드 리얼티(PT Modernland Realty)의 자회사 모데른 인터스트리얼 에스테이트(PT Modern Industrial Estate)는 반똌 주 세랑에 위

치한 모데른 씨칸데 공단 내에 국내 최초 할랄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최근 제1기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모데른 할랄 밸리(Modern Halal Valley)’라고 붙여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물류 센터 및 냉장 시설 등이 갖춰진 물류 부지가 개발된다.

지난 11일자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데른 인터스트리얼 에스테이트의 파스칼 사장은 “이미 식음료와 화장품

분야의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획 판매 가격은 기존 산업단지와 같은 m² 당 약 200만 루피아를 예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1,250평방미터의 작은 구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지 내에는 이슬람지도자회의(MUI) 식품·화장품시험기관(LPPOM)의 실험실을 설치하고 할랄 인증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모데른 할랄 밸리의 부지 면적은 총 500헥타르로 3기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된다.

자카르타, 순띠르 폐기물 발전 시설 12월에 착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특별주 정부는 북부 자카르타 순띠르

폐기물 발전 시설(ITF)의 건설 공사를 12월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부 자바 브카시 라흐맛 시장은 22일 자카르타특별주 정부를 방문한 아니스 주지사와 회담을 가져 자카르타특별주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

등과 관련해 협의했다.

한 팀을 결성해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아니스 주지사는 “ITF의 폐기물 처리 능력은 하루 2,200톤이다.

현재 반파르그방 폐기물 처리장은 2021~2022년에 한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언급했다.

72세 권장문씨 71타로 영광의 에이지슈트 만들었다.

지난 9월 팡그랑 소재 PT.HWASAN의 권장문사장은 가딩라야에서 72세의 나이로 71타를 기록하는 에이지슈트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많은 지인과 동반 라운드 하신 분들의 큰 축하를 받고 쑥스러워 하는 모습은 70대의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장면이었다.

평소 핸드 6개로 정당한 체력을 과시하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직접 보여주는 노익장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경북 영천이 고향인 그는약 10년전 인도네시아로 오게되어 현재 사업과 건강 모두를 다 잘 소화해내며 한인사회의 모범이 되는 자기관리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

한편 에이지슈트는 골프에서 18홀 라운드를 자신의 나이나 그 이하의 타수(그로스)로 끝내는 것을 뜻한다. 코스 규모가 남자는 6000야드 이상, 여자는 5400야드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미국 PGA 공식투어에서 에이지 슈트를 처음으로 기록한 사람은 샘 스니드. PGA 투어 최다승(81승) 기록 보유자인 스니드는 1979년 퀵드시티 오픈 마지막 라운드를 66타로 마무리했다. 당시 그는 67세였고 이 기록은 PGA 투어 최연소 에이지 슈트 기록이다.

한화생명, ‘교육보험’으로 印尼 시장 공략 박차



한화생명이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교육보험’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높은 경제성장률에 발맞춰 교육비도 높아지면서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교육보험을 판매 중이다. 국내 보험사 가운데 해외에서 교육보험을 출시한 것은 한화생명이 처음이다.

교육보험은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목표다. 국내에서는 지난 1960년 교보생명이 최초로 출시한 뒤 1980년대 정점을 찍었지만 의무교육이 확대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자취를 감췄다. 이후 올해 들어 교보생명이 변액교육보험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한화생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교육보험을 선보인 이유는 교육비가 높

아지면서 주력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에 이르는 신흥 발전국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중산층이 증가하자 높아진 교육열로 교육비도 오르고 있다.

실제 수도인 자카르타의 사립고등학교 입학비는 우리돈으로 300만원 가량이다. 사립대학 입학비용도 1,500만원 가량이나 된다.

인도네시아 직장인 평균 임금이 40~5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입학 비용이 엄청나게 높은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보험사들의 경우 새로운 시장 정착하기 위해 특화된 상품을 선보이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현지 교육시장 성장에 발맞춰 맞춤형 상품을 판매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지 사정에 맞춰 교육보험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며 “아직 큰 성과는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은 지난해 약 4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2016년(-113억원) 보다 손실을 줄였다. 올해는 흑자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ENIOR GOLF PROMO

WEEKDAYS
IDR 550.000
MANDATORY CART

GET FREE F&B VOUCHER
IDR 50.000*

* VALID ON WEEKDAYS ONLY
* VALID UNTIL 31 DECEMBER 2018
* THIS VOUCHER IS ONLY VALID ON THE SPECIFIC DAY

Jl. Modern Golf Raya No. 99, Perumahan Kota Modern, Tangerang 15117 - Indonesia
Phone : +6221 552 9228 | Fax : +6221 552 9177
Email : marketing@moderngolf.co.id | Website : www.moderngolf.co.id

인도네시아, 동남아 최대급 신공항 짓는다…허브공항 경쟁 격화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도 자카르타 외곽 해상에 대규모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아이(日本經濟)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공항이 건설되면 인접 기존공항과 함께 연간 여객수용능력이 1억명을 웃도는 동남아 최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최대의 창이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및 기존 공항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태국과 함께 동남아 허브공항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국영 공항 운영사 앙까사 뿌라2(PT Angkasa Pura, AP2)가 수립한 ‘제2 수카르노-하타공항 건설계획’에 따르면 신공항은 자카르타 교외의 기존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진 바다를 매립해 건설하게 된다.

총사업비 100억 달러(약 11조3천320억 원) 규모로 2020

년대에 착공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활주로 2개와 여객 터미널, 항공기 정비시설 등이 들어서며 기존 수카르노-하타 공항에도 터미널과 활주로 등을 증설기로 했다. 두 공항은 철도와 고속도로로 연결해 같이 운용한다.

니혼게이아이신문은 “건설사와 상사 등에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관 협력 모델(PPP)을 채택해 민간 기업에도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의 작년 이용자 수는 전년대 8% 증가한 6천300만명으로 수용능력을 초과하면서 극심한 혼잡과 운항지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작년 수카르노 하타 공항을 통해 싱가포르를 오간 항공편 탑승객은 330만명으로 홍콩-타이베이 항공편 승객에 이어 세

계 2번째로 이용객이 많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자카르타 공항에서 여객수용능력을 초과한 혼잡과 지연이

고 있다. IATA는 2035년에는 2015년의 2.2배인 2억4천만 명이 인도네시아에서 항공기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100억달러 투입 바다 매립해 제2 수카르노-하타공항 건설 연간 1억명 여객수용…싱가포르·태국도 기존공항 증설 계획

잇따르자 공항 건설계획에 착수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6천만명이 넘는 동남아 최대 국가다.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도 세계 10위 이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

다. 신공항의 연간 여객수용능력은 2천500만 명 이상으로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증설분과 합해 연간 수용능력이 1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허브공항 경쟁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기상청, 빠뿌아 지역 지진과 쓰나미 대비 당부



▲ [자료사진] 강진과 쓰나미로 무너진 인도네시아 중부술라웨시 주 빨루 시 8층 호텔.

인도네시아 지질기후기상청(BMKG)는 최근에 빠뿌아 지역에서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 주민들에게 앞으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하라고 당부했다고 22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페트루스 데몬 실리 BMKG 자야뿌라 지소장은 전날 “사르미, 비약, 세루이, 나비레, 자야뿌라 등 지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이 지역 주민들은 지진과 쓰나미 발생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들 지역은 바다에 가까운 평지여서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가 제한적인 만큼 쓰나미에 취약하다며, 지역적 재난만이 아니라 역외 재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11년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했을

때 자야뿌라 지역도 영향을 받았다.

최근 수일 간 빠뿌아 지역에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했고, 사르미 지역은 지난 19일 규모 5.7의 지진, 자야뿌라 지역은 21일에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최소 2,7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중부술라웨시 주 빨루와 서부누사뎡가라 주 롬복 지역의 지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빠뿌아에 대한 지진 예고가 나왔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지진이 빈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에는 우려가 크다. 최근 발생한 빨루와 동갈라 지역 지진과 쓰나미에서 주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조기경보시스템과 재난경감 노력에 큰 결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BMKG 자야뿌라 지소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주민들에게 지진과 쓰나미 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20년 전통과 신용의 업체

업무 내역:

1. 현지 법인 설립(PMA, PMDN, 연락사무소)
2. 투자청, 온라인 허가(OSS, NIB-APIU, P)
3. 이타스(ITAS) 및 은퇴비자(LANSIA VISA)
4. 부동산(주택, 사무실, 공장, 건물 등)
5. 무역업무대행(제품, 원부자재소싱 등)

이메일 : ptgcc@hanmail.net 카카오톡 ID: kitas
Tel : 021-5577-6454, 021-551-4891
위치 : 땅그랑 리본 까라와치 루포 피낭시아내
신축상가 엑셀리스 NO.18 (명가식당앞 상가)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실크로드 인도네시아는 디자인 연구소로써 그간 코파의 힘,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각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로그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함께 하겠습니다!



제5회 한인문예총 종합예술제 후기

융합,소통그리고 교류!

글 / 한국문화협 인도네시아지부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자카르타 대형 쇼핑몰인 리브 꼬 망물 아뜨리움에서 제5회 재인니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이하 문예총, 회장 박형동) 종합예술제가 개최되었다.

이번 문예총 종합 예술제는 ‘융합,소통 그리고 교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전시, 공연, 시연 그리고 문화 체험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날인 8일 오프닝에는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다양한 전시와 공연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이 적도나라인 인도네시아에 널리 퍼져 나갔다. 종합예술제의 개막식은 서은혜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재인니 한인스트링 오케스트라(단장: 허민경)의 트리오 연주를 시작으로 성대하게 막이 올랐으며 국악 사랑(단장: 장방식)의 가야금 연주와 자카르타 한인무용단(단장: 정방울)의 진주교방 굿거리 춤으로 전통과 현대문화의 조화를 멋지고 아름답게 보여주었다.

전시는 루시플라워회(회장: 최정순)의 꽃꽂이 전시, 서예협회 정기전(회장: 송판원)인니문인협회(회장: 서미숙)의 시화전(특별참여: 공광규시인), 월화차회(회장: 이춘순)의 다도시음, 한지공예(대표: 김경애)의 전통한지공예로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교민들과 현지인들에게 소개해주었으며 초청전시로는 ‘복주머니’ (이정호 작가)와 ‘복을 부르는 나비(Sasya Tranggono 작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화예술 교류의 일환으로 두 나라 문화가 소통하는 볼거리 풍성한 수준 높은 전시회가 열렸다.

일주일동안 전시 이외에도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열렸다. 한복 입어 보기 체험, 할쏘기 게임, 포토존(게임캐릭터,



경복궁후원) 및 한지공예, 사물놀이(한바패, 회장: 박형동), 서예(서예협회), 문학행사 3행시체험(문인협회) 그리고 한복(한국문화원) 체험을 통해서 한인들과 인도네시아인,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즐기고 체험하였다.

13일(토)과 14일(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문화원(원장 천영평)의 초청공연인 가수 홍순관의 ‘엄마나라 이야기’라는 동요와 시, 노래 콘서트가 개최되어 한-인니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 그리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시와 노래를 통한 아름다운 삶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이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전통춤과 무용을 보여준 자카르타 한인 무용단의 진주교방 굿거리 춤과 부채춤, 한바패의 진도북놀이 그리고 초청공연 열터의 사자놀이가 관람객의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더욱이 재인니 한인스트링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와 JKCC 어린이 합창단(단장: 안영수), 아르떼 여성 합창단(단장: 채영애) 그리고 자카르타 아버지 앙상블(단장: 변영국)의 환상적인 하모니를 멋진 음성으로 들으며 모든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로 하나된 따뜻하고 흥겨운

시간이었다.

한인문예총 17개 단체가 한마음으로 주최한 문화예술행사 폐막일인 14일에는 초청공연 크로스오버(서울아츠 앙상블: 서울에 대담)로 시작하였다. 마지막 공연 날에도 한국 전통문화, 클래식과 현대 음악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다. 초청공연 열터의 사물놀이, 판소리와 가야금, 자카르타 한인 무용단의 부채춤, 극동방송 합창단(단장: 신정일)의 합창, 초청공연 JKS Brass Band(단장: 백형균)의 브라스 연주와 마지막으로 색소폰 동호회(회장: 박의태)의 색소폰 연주로 일주일간 문화예술 축제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0월 한국문화주간을 맞아 K-pop, K-Food, K-Art, K-컨텐츠 등 Korea 플랫폼 속에 18개 복합 행사를 만들어 그중 한 꼭지 행사를 문예총이 맡아 진행한 문예총 종합 예술제는 총 24꼭지 중 35개의 콘텐츠를 만들어 총 610분 공연시간과 7일간 전시로 한국 문화 교류에 큰 공여를 하였다. 특히 열터 사자놀이는 프랑스 관객이 직접 사자탈을 쓰고 공연에 참석하여 관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관민이 함께한 이번 종합예술제는 인도네시아 땅인 리브 꼬 망

물에 예술과 문화의 향기로 가득했고 한국의 가을을 몰고왔던 2018년 10월의 아름답고 멋진 행사는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을 것이다.

괴테는 세상에서 해방되는 일은 예술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세상과 가장 확실한 관계를 갖는 데에도 예술을 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마음을 움직이는 시, 눈을 해맑게 해주는 꽃, 아름다운 서예와 한지공예, 다양한 음악과 춤을 담은 이번 제5회 문예총 종합예술제는 자카르타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평온한 작은 쉼터였다.

인도네시아 명언에 ‘서로를 모르면 사랑할 수 없다’는 말처럼 한국 문화와 예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뜻깊은 행사였다. 한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현지인과 주변에 사는 외국인들도 관람하여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더불어 최근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서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

피해자를 위해 관람객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palu기금 모금 행사도 개최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쓰나미 희생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행사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를 문화 예술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해서 더욱 우호적이고 단단한 국제관계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고국의 가을을 맞이하여 열대의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시원한 바람 같은 예술제를 치루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신 문예총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과 단체회장님들,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관심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후원: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양영연 한인회장, 이호덕 한인회 부회장, 김준규 한인회 부회장, 박형동 문예총 회장, 강희중 대한체육회 회장, 박재한 한인회 수석부회장, SAMSUNG, Lippo Mall Kemang, CJ투레쥬르 인도네시아

택배 JNE, 배송정보 제공 클라우드 기술 도입



인도네시아 최대 택배회사 JNE는 전자상거래(EC) 이용자의 배송정보 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관리 기술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JNE의 알리 부사장(기술 담당)은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 오라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해 JNE의 배송 정보 정확성을 이전보다 향상시

킬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은 JNE 앱을 통해 주문 상품의 도착 시간과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알리 부사장은 이어 “물류 서비스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화 및 블록 체인,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도입한다”라고 설명했다.

JNE는 매달 약 2,000만개의 화물을 배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EC를 통한 화물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 2017년 EC 거래 총액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350억 달러였다. 정보통신부는 2020년에 1,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통스목금형(통스발형)

철판 커팅 레이저 신규 가동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 아크릴, 합판, 빼그라이트 등 레이저 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 아스테이지, PC, 필름 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통스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통스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 ~ 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금형

부산광역시 진구 신천대로 65번길 38호 (범천1동)
TEL : (051) 637-9791 ~ 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korea.com
http : //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통스목금형, 특수 칼금형



한 걸음 더

제 10 회

범 한국 신발인의 날

10년을 달려왔습니다!
30년전 인도네시아에 우리 신발기업이 진출한 이래,
코파가 발족된 후 10년은 가장 빛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10년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 했습니다.

힘차게 달려온 10년을 뒤로하고
함께 **한 걸음 더** 나가는 미래의 코파를 만들겠습니다.

- 일 시 : 2018년 11월 14일(수)
- 장 소 : 모던랜드 CC
- 1부 행사 : 골프대회 (12:30)
- 2부 행사 : 신발인의 날 공식행사 (18:00)
- 3부 행사 : 만찬 및 경품추첨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함께 **화합**하여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땅그랑 반튼 한인회”

2018년
제9회 땅그랑반튼 한인회
한인의 밤 및 한인회장 이취임식

3대 오세명 회장, 4대 채만용 회장

“땅그랑 한인회 우리는 하나”



■ 초대가수 : 전 영 록

■ 일 시 : 2018년 11월 16일 (금)

■ 장 소 : 임페리얼 골프 클럽하우스

■ 1부 : 골프대회(TEE-OFF 12시30분)

■ 2부 : 한인의 밤 행사(저녁 6시)

판매처 : 한인회 사무실(RUKO PINANGSIA H - 28)

문의처 : 0812 8199 9542(허미숙 국장)

재인도네시아 땅그랑반튼 한인회